**승리하신 어린양을 따릅시다!**

**<요한계시록 5장 1-14절>**

**1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2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3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이늘 떼시리라 하더라**

**6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7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8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9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11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다 박해를 받아 밧모라 하는 섬에 유배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성령에 감동되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듣게 됩니다 (1:19).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 흔히 갖고 있는 편견 중 하나는 이 책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만 관련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현실의 삶을 충실히 사는 데는 이 내용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세상 끝’ 즉 ‘말세’에 관한 책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말세’란 미래의 언젠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따라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 말세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이 살던 시대도 말세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말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시대와 인생 속으로 비쳐들어오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며 다음과 같이 우리를 축복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3).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봅니다.

성령은 요한의 눈을 열어 하늘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팎으로 무언가가 쓰여져 있고,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외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비밀에 접근하는 것이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힘으로 하나님의 비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지혜를 뽑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학문과 지혜로 하나님의 비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도덕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윤리적인 행실로 하나님의 비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심히 낙심되어 요한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그를 위로하며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란 누구를 말합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분이 승리하셨기에 능히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요한은 방금 들은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습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므로, 일곱 뿔이란 그 어린양의 완전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또한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어린양의 눈에 가려지거나 숨겨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일곱 뿔 일곱 눈의 어린양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우주만물을 당신의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마침내 그 어린 양이 나아와 보좌에 계신 이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그러자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의 손에는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들려있습니다.

그 금대접 속의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합니다.

이윽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새 노래’란 최신 노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이전에 드렸던 찬송과는 질적으로 다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감격의 찬송을 말합니다.

그 ‘새 노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 어린양 예수님! 당신은 그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할 것입니다.”

이 찬송이 끝나자 이번에는 그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이 노래를 시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미래에 우리가 다함께 경험하게 될 일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미리 맛본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거나,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계시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린양을 통해 밝히 드러난 그 두루마리 속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에 기록된 그 내용을 자세히 다루는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그 핵심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양이 두루마리의 일곱 인을 하나 하나 뗄 때마다, 온 땅과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인을 떼자, 정복을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며 승리와 명성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 인을 떼자, 분쟁을 조장하는 권력자들로 인해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비참한 세상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 인을 떼자, 이 세상 다수의 사람들이 그저 먹고 살기 위해 고되게 일할 뿐 삶의 작은 행복에서조차 소외되어 있는 결핍된 인생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네 번째 인을 떼자, 전쟁, 흉년, 질병, 사고 등 세상에 닥치는 여러 재앙들로 인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인생의 비참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편, 다섯 번째 인을 떼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며, 승리하신 어린양을 따르는 그 순교의 행렬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계속될 것임이 드러납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자,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면 이 땅에서 권력과 부귀를 누리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양을 두려워하여 숨으려 할 것임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자, 마침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불같은 응답에 온 땅이 진동하게 되리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이것이, 말세인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또한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면, 이제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저는 오늘 본문을 따라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본문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사람들은 당연히 속으로 질문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려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전부!”

하지만 많은 이들이 여전히 기존의 자아를 출발점으로 삼아 마음내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시켜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5-26절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3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심지어 버리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그 첫 출발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부름받아 따르는 모습을 복음서 기자들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눅5:11).

C.S.루이스는 그의 책 <Mere Christianity>에서, 이처럼 ‘급진적인 회심’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쳐라. 나는 너의 시간과 물질과 일을 원하지 않고 바로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아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려고 왔다. 미봉책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나는 여기저기 가지만을 잘라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전체를 베어 넘어뜨리기를 원한다. 자아 전체를 내어 버려라. 악하다고 생각되는 욕망만이 아니라 선하다고 생각되는 요구까지도 모두 내어 버려라. 마음의 소욕을 모두 내어 버리면 그대신 내가 새로운 자아를 주겠다. 사실, 나는 너에게 나 자신을 줄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행복에 필요한 만큼만 예수님에게서 무언가를 취하려 하는 신앙생활을 이제 끝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전체를 드리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자아를 선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모순’과 ‘역설’의 차이를 아십니까?

‘모순’은 서로 반대되는 듯 보이는 두 사실이 서로를 배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편 ‘역설’은 서로 모순관계인 듯 보이는 두 사실 속에 어떤 심오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역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도 하십니다.

이 둘은 모두 진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모순처럼 보이는 벽 앞에 멈추어 서서, 거기에 삶의 자리를 펴고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돌파입니다. 신앙은 그 모순의 벽을 뚫고 역설의 진리를 향해 손을 뻗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을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바른 출발점이요,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이 제자의 길을 택하지 않을 때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자화되지 않은 대가는 이생만을 고려한다 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 비제자화로 인해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은 지속적인 평안과, 사랑으로 점철된 삶,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매사를 바라보는 믿음, 아무리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쓰러지지 않는 소망, 옳은 것을 하고자 하는 능력과 악의 세력들에게 대적하는 힘, 이 모든 것들이다. 요컨대, 그 대가는 정확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풍성한 삶이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고 그분 안에서 약속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세를 사는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이 특권과 사명을 일컬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백성들의 죄악과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세상에 보냄받은 복음의 제사장들로서 오늘 우리가 해야할 역할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모든 영역과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의 부르심은 동양인과 서양인, 목회자와 평신도, 젊은이와 늙은이,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넘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부르심입니다.

이 선교적 부르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성실히 실천했던 분들 가운데 ‘모라비안형제단’이 있습니다.

그들의 뿌리는 지금의 이 체코 땅입니다.

1415년 후스가 순교한 후,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개혁신앙을 순수하게 지켜가고자 했던 이들 중에 한 무리가 동쪽 모라바 지역으로 가서 신앙공동체들을 형성하고, 그 이름을 ‘형제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620년 빌라호라 전투에서 후스파가 카톨릭에 패하면서, 이 형제단들 역시 고국땅에서의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고, 그중 다수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찾아가 정착한 곳이 오늘날 독일의 ‘헤른후트’라는 곳인데, 그곳은 경건한 그리스도인 진젠도르프 백작의 영지였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헤른후트의 다민족 신앙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이후 그것은 세계선교 역사에 한 획을 그은 폭발적인 선교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732년부터 1760년대 말까지 200명 이상의 모라비안들이 북아메리카, 그린랜드, 수리남 등 여러 지역으로 선교활동을 떠났고, 그들을 통해 약 4천명의 회심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영성을 통해 존 웨슬리, 윌리엄 캐리 등 많은 그리스도들이 감화와 도전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 뛰쳐나갈 수밖에 없게 했을까?”

스펄전 신학교와, 제가 공부한 IBTS에서 교회사를 가르친 Ian Randall 박사는 근대 복음주의선교의 모태가 된 이 모라비안형제단의 선교 영성을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로 그들에게는 확실한 회심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이 구원의 확신 속에 사는 것을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성경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소그룹 성경공부 모임을 자주 가졌고, 이를 통해 복음 전파가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습니다.

셋째로 그들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자주 묵상하고 성만찬을 자주 시행하는 가운데, 그 수난의 십자가가 곧 승리의 길임을 확신했습니다.

넷째로 그들은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배에 단 기장에는 핏빛 바탕에 양 한 마리가 깃발을 들고 왼쪽을 향해 오른발을 치켜들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그들의 문장에는 “우리의 어린양은 승리하셨다. 그분을 따르자” 라는 라틴어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나아간 형제자매들을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기도체인을 조직했고, 두명 이상씩 짝을 이루어 매시간 교대로 진행된 이 기도운동은 무려 1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답게 살아갔던 그들을 향해 주위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God’s happy people”, 즉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꼬빌리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형제단들의 고향인 이 체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체코의 선조들에게 신앙의 빚을 지고 있다는 말은 참으로 정당합니다.

모라비안형제단의 영성이 이후 영국에서 복음주의의 부흥과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촉발시켰고, 이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결실로 조선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체코는 유럽에서 가장 세속화된 나라, 즉 사람들이 교회와 복음으로부터 가장 멀어져있는 사회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분들에게 진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때로는 잘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 못 하기도 했던 지난 시대 기독교 선교의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고백하게 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 내 증인이 되리라” (행1:8).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며, 그 일을 성취하는 능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우리가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오직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순종할 채비를 갖추고 서있는 것입니다.

모라비아로부터 헤른후트로 이주해간 그 이주민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세계선교를 위해 그처럼 대단한 일을 해내리라고 미처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그들에게 붙은 성령의 불이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붙어갔을 뿐이라고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체코로 이주해온 우리들에게 성령의 불이 붙고, 이후 그 불이 내 옆에 있는 체코의 형제자매들에게도 옮겨붙기를 소망하는 것은 저만의 지나친 욕심일까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좋습니다. 앞으로 저는 바로 이러한 소망 안에서 기도하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가면 어떻겠습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일이기에, 그 마음에 물든 사람은 앞서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선교가 존재한다”고 한 선교학자 데이빗 보쉬의 말을 좋아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자 할 때 어디에서 시작해야 하는지를 늘 새롭게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선교를 해야 한다는 당위’에서 출발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기쁨과 은혜’에서 출발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겠다고 결단하십시다!

매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결단하십시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겠다고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결단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이 승리하신 어린양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제사장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시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신 어린양을 따라 이 땅에서 복음의 제사장 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승리하신 어린양을 따라**

**세상에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기 원하는**

**꼬빌리시 온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체코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